

【연구논문】

체형의 문화적 의미: *Fat Pig**

박용남

(고려대)

현대 미국사회에서 개인의 신체적 체형이 갖는 문화적 의미는 무엇일까?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그리고 존엄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미국사회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의 체형에 관하여는 공평하지 못하다. 20세기 후반 들어 인종, 젠더, 계층, 그리고 성적취향 등 많은 전통적인 사회적 차별과 억압들이 점차 해소되는 경향을 보여 왔던 반면, 개인의 체형과 외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엄존한다.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말이 단순한 농담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리얼리티로 느껴지고, 이른바 루키즘(lookism), 싸이지즘(sizeism) 등으로 표현되는 외모지상주의가 과거 인종이나 젠더 못지않게 새로운 차별과 억압의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회가 요구하는 표준체중 이상의 비만 체형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육체적 체형의 의미를 넘어 사회문화적으로 ‘비정상’의 표시이며 심지어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열등한 사람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이들은 과거 미국사회에서 유색인종, 여성, 동성애자 등이 그랬듯이 주류사회로부터 치욕적인 오명과 낙인으로 새로운 사회적 타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체형을 근거로 가

* 본 논문은 2015년도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교내지원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K1519861).

해지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현대 미국사회가 보여주는 개인에 대한 새로운 억압이자 타자화라고 할 수 있다.

체형과 외모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평등정신에 위배될뿐더러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훼손한다. 체형 차별과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은 현대 미국사회의 많은 영역에 걸쳐 존재하고 개인의 공적 및 사적인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외모가 개인의 고용과 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미국 텍사스대학교 노동경제학 교수 대니얼 해머메시에 의하면 교육수준과 나이, 인종, 결혼여부 등 다른 요인들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외모가 더 좋은 남성의 연봉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17%, 여성의 경우에는 1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은 선하다”는 허구적인 신화를 사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역으로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은 악하다”로 확대되어 인식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실제로 “남자의 경우 신장(height)이 의미하는 것은 IQ가 높다든가, 능력이 좋다든가, 믿음직하다든가, 심지어 착하다든가, 하는 상당히 폭넓은 긍정적인 속성들을 의미”(Rhode 57)하는 매우 포괄적인 문화적 의미로까지 받아들여진다. 이렇듯 체형과 외모가 단순한 체형의 의미를 넘어 개인의 능력과 내면적 가치를 암시하는 척도로 인식되는 사회적 현실은 불합리한 미국사회의 한 단면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양으로서의 체형을 개인의 내면적 가치와 동일시하는, 이른바 현대 미국사회의 외모지상주의가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편견과 차별이 개인에게 얼마나 폭력적인 억압이 될 수 있는지를 미국 극작가 닐 라뷰트(Neil LaBute)의 작품 『팻 피그』(*Fat Pig*)를 통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의 체형과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끊임없이 투자한다. 이는 외모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대변해주고 있으며 사회는 자신의 능력과 내면적 가치를 상당부분 외모로 판단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알래스카 주지사로 재직 중 2008년 미

국대통령 선거에서 매케인 공화당 후보와 함께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세라 페일린(Sarah Palin)은 선거운동 당시 외교정책 자문관보다 자신의 메이크업 전문가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한다. 유력 정치인의 선거과정에서 정책개발과 관련된 전문 참모진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현대 미국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Rhode 31). 오늘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의학 전문분야중 하나가 미용과 관련된 성형외과라는 사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체형과 외모는 단순한 육체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 사람의 지적, 경제적 능력은 물론 직업적인 업무수행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미국에서 피부색이 개인의 능력과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던 것과 크게 다름없다. 표준 이상의 체형을 가진 비만의 사람들은 직장의 동료나 상사로부터 게으르거나 자기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자신의 몸매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예산이나 직원들은 어떻게 통제한다 말인가?”(Rhode 151) 라는 논리이며, 이런 관점에서 비만 체형은 틀림없이 개인의 커리어를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화적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인정하는 아름다운 육체적 외모 가꾸기를 최고의 가치이자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애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미국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부부들의 11%는 만약 태아가 유전적으로 비만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면 차라리 낙태하겠다고 대답했다(Rhode 56). 이렇듯 비만한 체형에 대한 혐오와 공포감은 크지만 이상적인 체형과 아름다움을 성취하고 유지하는 일 또한 매우 어렵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이러한 광적인 외모지상주의는 현대적인 억압이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육체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기준”(impossible standards) (Smart 20)을 설정하고 요구한다는 점에서 거의 폭력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모지상주의는 사회경제적 계층의 특권을 반영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계층차별을 조장하는 역기능을 내재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사회에서 지배적인 미의 기준들은 외모에 투자할 시간과 돈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매우 불리하다. 아름다운 체형과 외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패션, 메이크업, 헬스클럽, 살빼기 제품, 균형 잡힌 건강한 식사, 그리고 성형수술 등을 구매할 여력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다. 다시 말해 돈이 있어야 좋은 외모도 가꿀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사회에서 개인의 경제력과 외모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장과 개인소득, 교육, 그리고 연애와 결혼 등 개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모지상주의와 그에 따른 차별은 사회경제적 계층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경제력의 차이는 불평등한 교육과 고용기회, 경제적 빈곤에 맞닿아있고 이는 불리한 인간관계와 심리적 스트레스로 연결되어 비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반면에 부유한 계층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회경제적 위치를 점유함으로써 정신적인 행복감과 좋은 인간관계, 육체적으로도 더 날씬하고 아름답게 자신을 가꿀 수 있는 긍정적인 선순환의 과정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가난한 사람이 더 뚱뚱해지고, 뚱뚱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진다는 것으로서 실제로 미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흑인들의 비만 비율은 백인에 비해 51 퍼센트나 더 높고 스페인계의 경우는 21 퍼센트 더 높다”(Rhode 79)는 사실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외모지상주의의 또 다른 문제점은 외모에 따른 편견과 차별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욱 엄격하고 가혹하기 때문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우 외모에 의한 부당한 편견과 차별적 대우가 남성의 경우보다 더 복잡하고 강화되어 비만한 여성은 과도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감내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비만에 대한 여성들의 공포감은 더욱 크다. 미국에서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여성의 90퍼센트 정도는 외모를 자신의 이미지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젊은 여

성의 절반 이상은 비만한 몸집을 가지느니 차라리 트럭에 깔리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Rhode 27) 대답할 정도로 여성들은 자신의 몸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비만한 여성의 1/3 이상이 10퍼센트의 몸무게를 줄일 수 있다면 기꺼이 죽음의 위험이라도 무릅쓰겠다고 응답하는 것을 볼 때 외모에 따른 편견과 차별이 많은 미국여성들에게 매우 강력한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비만한 체형의 여성이 비만한 남성보다 더 치명적인 오명과 불명예를 얻는다는 점에서 남녀평등 원칙에도 크게 위배된다. 그러므로 비만 여성은 미국사회가 소위 ‘빔보’(bimbo)라고 부르며 모욕하는 체형차별의 최대 피해자로서 미국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타자이다.

외모지상주의는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늘 불만족스럽게 느끼게 만들고 이때문에 식욕 등 자연스런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억압하도록 강요하는 지극히 여성 억압적 문화이다. 특히 현대 미국사회의 다양한 대중매체들은 일반적인 여성들이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수준의 이상화된 체형을 표준모델로 제시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영원한 낙오자의 멍에를 씌워서 심리적으로 억압한다. 아울러 이것은 남성의 기호와 호감도에 여성의 신체적 크기를 순응시키려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억압적 남성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화장품 회사 창립자인 헬레나 루빈스타인의 “못생긴 여자는 없다. 다만 게으른 여자가 있을 뿐이다”(Hakim 48, 재인용)라는 말은 여성에게 매우 억압적인 편견의 전형이다. 하지만 이제는 불법이 된 과거의 다른 사회적 차별과 억압과는 달리 체형에 근거한 편견과 외모차별이 개인의 존엄과 평등원칙을 해치는 불합리하고 성차별적인 억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률이나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4년 발표된 닐 라뷰트(Neil LaBute)의 『팻 피그』(*Fat Pig*)는 이러한 개인의 체형, 특히 비만한 여성의 체형문제를 무대화하여 현대 미국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와 외모차별의 폭력성을 코믹하면서도 비애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이 극에서 라부트는 통렬한 유머로 관객들을 웃게 만들지만 이내 관객들로 하여금 그들이 웃었던 웃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Bacalzo). 2004-2005 시즌 동안 오프 브로드웨이(Off-Broadway)에서 성공적으로 공연된 이 작품은 표준적인 체형을 가진 한 남성과 뚱뚱한 체형을 가진 한 여성의 사랑과 이별을 다루고 있다. 표준 체형의 잘 생긴 남성 탐(Tom)은 상냥한 성격의 뚱뚱한 여성 헬렌(Helen)을 사랑하게 되지만 그들의 로맨틱한 관계를 바라보는 주위 직장동료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들은 표준 체형의 남성 탐이 뚱뚱한 체형의 여성 헬렌과 데이트한다는 것이 비정상적인 만남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탐에게 헤어질 것을 강요한다. 뚱뚱한 여자 친구에 대한 주변의 편견 때문에 힘들어 하던 탐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랑하지만 헬렌과 헤어진다. 진한 페이스스를 자아내는 이들의 비극적 결말은 개인의 체형에 대한 미국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억압적이고 때로는 잔인한 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주변의 편견에 강하게 저항해왔던 탐이 끝내 굴복하고 마는 모습을 통하여 개인의 소신이 문화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를 느끼게 해준다.

캄포스(Campos)에 의하면 미국사회에서 비만하다는 것은 특정되고 구체적인 체중의 수치라기보다는 “사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체중 이상의 체중을 갖은 사람들”(to be fat in America today means to weigh more than whatever a person's particular social milieu considers appropriate (xxiii)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만은 특정한 수치적 사실(fact)이라기보다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상태이자 주관적 편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팻 피그』의 주요 등장인물들 역시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비만을 정의하고 비만한 체형의 사람들을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그들은 비만한 체형을 단순한 체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체형에 개인의 인격과 내면적 가치를 결부시키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신들이 맹신하는 문화 속에 함몰되어 자신들의 생

각이 편협한 편견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 극의 주인공인 탐과 헬렌은 점심을 먹는 사람들로 붐비는 식당 안에서 처음 만나게 된다. 뚱뚱한 여성 헬렌이 테이블에 홀로 앉아 열심히 음식을 먹고 있다. 무대 위에 혼자 앉아 푸짐한 양의 식사에 집중하고 있는 뚱뚱한 여성 인물은 객석의 관객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작가의 관점에 의하면 무대 위에서 헬렌이 식사하는 모습은 지켜보는 관객들에게 매우 여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여성에게 낮은 칼로리의 음식을 적게 섭취할 것과 그렇게 함으로써 날씬하고 매력적인 몸매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는 미국 주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음식을 먹는 것과 그녀의 뚱뚱한 몸 자체는 사회적 표준과 기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심각한 ‘비정상’으로까지 확대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자신의 육체적 욕구대로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행위와 뚱뚱한 몸 자체를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그녀에게 치욕적인 낙인찍기(stigmatization)가 아닐 수 없다. 헬렌은 비만한 여성에게 미국사회가 가하는 편견과 억압을 관객의 응시를 통해서 한 몸에 받고 있으며 관객들은 이 순간 비만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대행한다고 할 수 있다.

헬렌은 자신의 뚱뚱한 체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잘 인식하고 있다. 붐비는 식당 안에서 빈자리를 찾는 탐에게 선뜻 자리를 내어주고 그와 합석하게 된 헬렌은 불편한 심정을 털어 놓는다. 그녀는 사람들이 늘 자신의 면전에서조차 뚱뚱하다는 말을 한다고 토로하고, 자신이 오늘 점심으로 먹은 많은 양의 음식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낀다. “사실 저는 오늘 점심을 이렇게 많이 먹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었어요 . . . 피자 세 조각에 마늘빵, 그리고 샐러드, 게다가 디저트까지. . .”(I shouldn’t have all this stuff for lunch, anyway, but I can’t help it. I’m hungry. . . I had three pieces of pizza, and the garlic bread, and a salad. Plus dessert. . .)(Labute 7, 이하 본문 인용은 이 책에서 인용함). 사실 식욕에 따라 음식을 먹는 것은 개인의 기본

적인 자유이기에 헬렌이 그것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탐은 사람들이 무례하다며 그녀의 편을 들어주고, 음식 역시 “당신 몸이니깐 당신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먹어도 괜찮다”(It’s your body, you do what you want. That’s what I think)(7)며 헬렌을 위로한다. 하지만 이 말은 탐의 립 서비스에 불과한 말이지 그의 진심이 아니다. 그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표준체형에 관한 기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내면화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탐 역시 체형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통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탐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날씬하고 정상적인 체형유지를 위해 음식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극도로 억제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헬렌이 디저트로 푸딩 한 개를 권했을 때 체중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거절하다가 결국 받아먹는 그의 모습이 매우 신중하다 못해 우스꽝스럽다.

그는 여자로부터 푸딩 한 개를 받아서 한 숟가락 퍼 먹는다.

여자: 맛있어요?

남자: 음~ 맛있네요.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여자: 뭐라고요?

남자: 맛있어요. 성경학자처럼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검토해보고 먹었어야 했는데 그냥 먹어버렸네요.

그는 푸딩 통을 들어 마치 그것이 진귀한 골동품이나 되는 것처럼 불빛에 비춰보며 여러 각도에서 자세히 검토해 본다. 이 모습에 여자는 웃는다.

He takes a tub of pudding from her and digs in.

Woman: Good?

Man: Mmmmmmm . . . wonderful. Haven’t done that in ages.

Woman: What?

Man: Enjoyed myself. Like that. Put something in my mouth without reading the back label like some Bible scholar. . . .

He gives an example - holding the pudding up to the light as if it was an antiquity and squinting at it. Examining it from all angles. This makes her laugh again. A lot. (11)

이것은 조금 전 헬렌에게 자신의 몸이니 걱정 말고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말했던 그의 말과 배치되는 것이며, 몸매관리를 위해서 그 역시 ‘먹는 자유’와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마치 성경학자처럼 철저하게 라벨을 조사하여 칼로리 수치를 따지고 맛을 포기하면서까지 무지방(fat-free) 또는 저지방(low-fat) 식품에 열광하는 현대 미국인의 ‘지방공포증’(fat-phobia)문화를 엿볼 수 있다. 이것은 물론 건강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보건정책의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음식선택권’과 ‘먹는 즐거움’을 억압하는 새로운 현대적 억압으로 볼 수도 있다.

뚱뚱한 체형을 가진 헬렌은 주류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표준과 정상에서 벗어난 인물이다. 그러기에 정상에서 벗어난 여성과 데이트를 한다는 사실은 정상적 규범 속에 있는 남성 탐에게는 매우 부담스런 일이다. 이 때문에 그는 헬렌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주변을 의식하며 뚱뚱한 여성과 식사하는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에 대해 걱정한다. 그의 이런 마음을 눈치 챈 헬렌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영화 <트로이>의 여주인공 헬렌처럼 자신을 차지하려면 “수천 척의 배가 필요하다” (14)고 말한다. 물론 가볍게 한 농담이지만 헬렌의 이 농담 속에는 의미 있는 뼈가 있다. 영화 <트로이>에서 미녀 헬렌을 차지하기 위해 남성들은 거대한 ‘트로이 전쟁’을 치르듯이, 사회문화적으로 정상 규범에서 벗어난 헬렌을 애인으로 얻기 위해서는 ‘트로이 전쟁’ 같은 엄청난 심리적 전쟁을 치러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탐이 주변 인물들과의 이러한

심리적 ‘트로이 전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가 이 극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된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의 ‘트로이 전쟁’에서 탐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와 불굴의 주체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탐은 뚱뚱하지만 상냥하고 성격이 매력적인 헬렌과 데이트를 지속하게 되고 그들의 로맨틱한 관계는 더욱 깊어 간다. 하지만 탐은 헬렌과의 만남을 자신의 직장 동료들에게 철저히 숨긴다. 친한 직장동료이자 친구인 카터(Carter)가 이내 눈치를 채고 데이트 상대 여성이 누군지 집요하게 캐묻지만 탐은 끝까지 알려주지 않는다. 시내 모든 식당을 다 뒤져서라도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겠다고 말하는 카터는 친구가 아니라 마치 이들의 순수한 영혼을 파괴하는 “악마”(Satan)(21)와도 같은 인물이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헬렌과 데이트를 하던 탐은 카터와 직면하게 되고 탐은 당황하며 시카고에서 출장 온 여성과의 업무상 회식이었다고 거짓말 한다. 그 후 계속해서 둘러대며 버텨보지만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옛 여자 친구이자 동료인 제니(Jeannie)에 의해 이 사건은 급기야 회사 회계 서류상의 문제로 확대되고 궁지에 몰린 탐은 결국 동료들에게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

직장동료인 카터와 제니는 탐이 뚱뚱한 여성 헬렌과 데이트를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다. 이들이 제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탐의 여자 친구가 다름 아닌 바로 ‘뚱뚱한 여성’이라는 점이다. 이때부터 헬렌의 체형에 대한 이들의 편견과 낙인찍기(stigmatization)는 본격화되고 이것은 탐에게 심각한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특히 카터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엄마가 뚱뚱하다는 사실에 매우 분노했었고 아직까지도 여성의 비만을 절대 용인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그는 어릴 적 자신의 아버지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도 엄마가 뚱뚱해서 여성으로서 매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카터: 아버지는 늘 늦게 퇴근하곤 하셨어. 주말에는 골프를 가셨고

근데 난 그게 다 엄마 때문이란 걸 알았어. 어떻게 아빠가 그렇게 똥똥한 엄마를 사랑할 수 있었겠냐고?

Carter: My dad was always working late . . . golfing on weekends, and I knew it was because of her. It had to be! How's he gonna love something that looks like that, get all sexy with her? (48)

카터는 어릴 적 마트에서 펀사이즈(fun-size) 초콜릿을 고르면서 뒷면의 칼로리 표시를 점검하는 엄마에게 “초콜릿 포장지를 볼 것이 아니라 거울을 봐봐 이 돼지야, 당장 내려놓으라고”(Don't look at the package, take a look in the fucking mirror, you cow! PUT 'EM DOWN) (49) 라고 소리 질러 엄마에게 모욕적인 상처를 줬던 일을 회상한다. 상처받은 엄마가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을 회상하지만 그는 비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Do-not-jam-so-much-food-in-your-fucking-gullet)(49)는 그의 투철한 신념을 힘주어 탐에게 강조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절친한 동료 탐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성이 다름 아닌 그가 그토록 혐오하는 음식을 많이 먹는 똥똥한 여자인 것이다.

똥똥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미국사회의 현실인 반면 영화나 드라마 등 미국의 대중매체 속에는 날씬하고 매력적인 체형의 사람들만이 멋있게 그려진다. 하루에도 여러 번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매스미디어에 노출되는 미국인들이 날씬함을 아름다움이자 선(善)으로, 똥똥함을 비정상이자 악(惡)으로 동일시하며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체형의 사회적 의미를 내면화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은 카터가 그렇듯이 매스미디어가 체형에 대해 말하는 것을 사실이며 모두 옳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Smart 20). 그러므로 카터의 엄마는 물론 카터 자신도 미국의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편파적인 외모지상주의의 피해자들이다. 그들은 대중문화가 정해놓은 표준 체형과 아름다운 외모에 자신의 육체를 맞춰야하는 압박감 때문에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억압하며 살아가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카터는 정상체형의 탐이 뚱뚱한 헬렌과 만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 그의 편견은 확고부동하며 심지어 탐이 헬렌을 만나는 것은 “신께서 주신 축복을 저버리는 것”(70)이라고까지 말하며 그들의 교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카터: 물론이지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엘튼 존 얘기는 안하지만 그래도 너는 지금 매우 잘생기고 멋진 놈야. 성공했고 출세도 했고 말야. 그런데 넌 신이 내려준 그 축복을 지금 걷어차겠다는 거야?

탐: 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냐?

카터: 이봐 친구, 널 보니까 성경 얘기가 딱 생각나네. 너 ‘노아의 홍수’ 얘기 알지? 노아를 봐봐. 노아가 방주 속에 원숭이를 양과 짝지어 넣진 않았지? 맞지?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려라.” 알야?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이 친구야.

Carter: Of course! Fuck, what else can I go on? (Beat.) I don't wanna come off like some Elton John here, but you're a good-looking guy. You're successful, bit of a player in the industry . . . I don't understand you taking God's good gifts and pissing on 'em . . .

Tom: Carter . . .

Carter: Dude, you're the one who evoked a biblical thing earlier . . . so take a glance at Noah and all that flood shit! He didn't pair up the apes with the antelope, right? It's one of the many laws of nature. “Run with your own kind.” (70-71)

카터는 헬렌같이 뚱뚱한 여자는 “자신에게 맞는 부류의 남성”(A somebody that fits her)(71)과 만나야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헬렌에게 맞는 부류는 동일하게 ‘뚱뚱한 사람,’ ‘대머리,’ 심지어 ‘동성애자,’ ‘저능아,’ ‘불구자,’ 등이며 카터는 이런 과격한 언급을 통하여 비만을 매우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식하는 편파성을 보여준다. 카터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탐은 강하게 반대하지만 그의 마음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 극에서 카터가 뚱뚱한 체형에 대해 갖는 편견은 다소 지나친 면이 있으나 미국 주류문화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인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날씬한 체형이 모두가 따라야하는 표준이며 정상적인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대중문화에 길들여진 카터의 관점에서 볼 때 탐이 뚱뚱한 여성 헬렌을 선택한 것은 비정상이자 자신을 속이는 거짓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그는 탐에게 “이봐, 우리 솔직해지자고”(Come on, be honest) (71)라며 “우리는 모두 (주류문화를 거스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how vulnerable we all are) (71)라고 설득한다. 약한 개인이 체형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기준을, 그것이 설사 편견이라 할지라도, 거스를 수 없다는 얘기이다. 카터는 영국 헨리 8세의 수장령이라는 강력한 사회현실에 순응하기를 거부했다가 처형당한 토마스 모어의 이야기를 거론하며 매우 설득력 있게 탐을 압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과 헬렌의 사랑은 더욱 깊어간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데이트 차원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도 나누는 깊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사회적 편견과 주관 사이에서 탐의 갈등도 동시에 깊어만 간다. 헬렌은 자신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늘 숨어만나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자신을 탐의 동료들에게 정식으로 소개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탐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하지만 내적으로는 매우 난처함을 느낀다.

연극 평론가들에 의하면 닐 라부트(LaBute)는 “LaBrute”(Simon)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의 연극이 보여주는 유머가 때론 ‘잔인할’(brutal) 정도로 관객을 불편하기 만들기 때문이다. 동료들에게 정식으로 소개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날은 공교롭게도 해변에서 열리는 탐의 회사 야유회 날이다. 해변 야유회는 수영복을 입어야한다는 점에서 배경을 해변으로 설정한 라부트의 위트는 ‘잔인’하다. 수영복을 입은 헬렌의 뚱뚱한 몸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최근 필라테스 운동으로 잘 다듬어진 동

료 여성 제니의 날씬한 몸과 극적으로 대비되기 때문이다. 약속은 했지만 탐은 끝내 헬렌을 소개시켜주지 못하고 동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책만 읽고 있다.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은 헬렌은 또다시 핫도그 등 많은 음식에 집착하게 되고 음식보다는 해변 스포츠에 열중하는 날씬한 제니와 다시 한 번 ‘잔인하게’ 대비된다. 괴로워하던 탐은 동료들과 어울리자고 재촉하는 헬렌에게 마침내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탐: 난 아무래도 동료들이 나에게 대해 생각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 내 선택에 대해서 말이야. . . .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매일 이럴 수는 없다구. (그는 울기 시작한다.) 미안해. 나도 내가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정말야. 하지만 난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난 정말 더는 세상과 싸울 수 없단말야. 난 그리 강한 놈이 못돼. 그렇게 용감하지도 못하고 내가 더 강해줄기를 원하는 걸 알지만 난 그저 나약하고 두려운 겁쟁이에 불과하다고

Tom: I guess I do care what my peers feel about me. Or how they view my choices, . . . I'm just not gonna be able to do this, on like, a daily basis. (*Starts to cry.*) God . . . look at me! It's . . . I'm sorry about this and I wish that I was saying what you wanna hear. I do. . . . I feel like I'm drowning in it - shit - and I don't think I can . . . I don't wanna fight it anymore. I am just not strong enough for that. . . . That I'm not brave. I'm not. I know you want me to be . . . always believed that I can be, but I'm a weak and fearful person. (82-83)

라뷰트는 이 극의 서문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사람들이 자신의 소신대로 살려고 애쓸 때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극이라고 밝히고 있다(xii). 사회적 편견에 맞서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탐이지만 그는 결국 약했다. 외양이 아닌 인간의 내면적 가치를 보려

고 애쓰는 탐에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다수의 횡포”(the tyranny of the majority)(Bigsby 171)는 너무 강했다. 사랑의 배신자라고 탐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카터가 말했듯이 우리는 거대한 사회 앞에서 나약한 겁쟁이 개인에 불과하다. 그동안 사회적 편견에 맞서서 강한 주체성을 견지해오던 헬렌 역시 마지막 장면에서는 무너진다. 탐의 헤어지자는 요구에 그녀는 “오빠, 나 사실 아무에게도 이런 말 한적 없는데 . . . 절대로 심지어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야. 정말이지, 나 이런 말 한적 없었어. 근데, 오빠, 내가 변할게, 내가 오빠를 위해 살을 뺄게, 오빠”(I’ve never said this to anyone, not any other person in the world. Ever. My parents or a . . . no one. I would change for you. I would)(81)라며 결국 사회적 요구에 순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탐과의 사랑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위절제술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날씬하게 체형을 변화시키겠다고 울며 매달리는 헬렌을 보면서 관객들은 연민과 더불어 자신들의 웃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헤어짐에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두 남녀는 말없이 해변에 주저앉아 망망한 바다를 바라본다. 밀려오는 거친 파도와 광활한 바다는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닐 라뷰트의 『팻 피그』(*Fat Pig*)는 개인의 체형이 현대 미국사회에서 갖는 문화적 의미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개인의 체형과 외모가 그 사람의 내면적 가치를 대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형은 문화적으로 개인의 내면적 가치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이 때문에 미국인들은 사회가 기대하는 표준 체형과 외모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비만을 혐오하는 이른바 ‘비만공포’(fat-phobia)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비만공포’ 문화는 더 나아가 표준에서 벗어난 뚱뚱한 체형을 가진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낙인찍고 그들을 차별하며 타자화한다. 라뷰트는 이러한 체형차별과 외모지상주의 문화를 개인의 개성과 존엄성에 반하는 현대적인 억압으로 인

식하고 이에 반대한다. 그는 “세상의 무게”(The Weight of the World) (lx) 라는 제목의 작품 서문에서 자신도 한 때 다이어트를 통해 8개월 만에 60파운드의 체중을 감량했으나 창작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몸매관리에 신경 쓰게 되었고, 결국 6개월 후 다시 40파운드가 늘어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스트레스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stress eater)(x)이라며 자신과 같은 비만 체형의 사람들에게 공감한다. 헬렌 역시 사회적 소외감에서 오는 외로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더욱 음식에 집착하게 되었으므로 그는 그녀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연극은 탐과 헬렌의 사랑과 이별을 통하여 현대 미국사회에서 체형 차별과 외모지상주의의 부당함과 폭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뚱뚱한 체형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부당한 편견으로 차별하고 억압하는 사회가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음식의 칼로리를 걱정하기 보다는 자신의 육체적 욕구에 순응하고 충실한 헬렌이 어찌 보면 더 인간적일 수 있다. 반면에 날씬한 표준 체형과 외적 아름다움을 가졌지만 사악할 정도로 탐과 헬렌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카터와 제이니가 더욱 탐욕스럽고(piggish)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목의 ‘뚱뚱한 돼지’(fat pig)는 헬렌이 아니라 카터와 제이니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들은 현대 미국사회가 뚱뚱한 체형의 사람들에게 가하는 편견과 체형차별의 억압을 대변하는 인물들이며, 이들의 편협한 편견은 순수한 개인들에게 치명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연극은 개인적 신념과 사회적 문화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개인은 사회를 이기지 못한다. 탐이 그랬듯이 개인이 주변의 사회적 시선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주관만으로 살아가기는 너무 힘들다. 이 연극은 사회라는 거대한 힘 앞에 선 개인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연극이기도 하다.

Works Cited

- Bacalzo, Dan. "Fat Pig." 16 Dec. 2004. Retrieved on 15 Dec. 2015. (http://www.theatermania.com/off-broadway/reviews/12-2004/fat-pig_5453.html)
- Bigsby, Christopher. *Neil LaBute: Stage and Cinema*. New York: Cambridge UP, 2007.
- Campos, Paul. *The Obesity Myth: Why America's Obsession with Weight is Hazardous to Your Health*. New York: Gotham Books, 2004.
- Hakim, Catherine. *Erotic Capital*. Trans. Hyunjoo Lee. Seoul: Mineumsa, 2013.
- LaBute, Neil. *Fat Pig*. New York: Faber and Faber, 2004.
- Rhode, Deborah L. *The Beauty Bias*. Trans. Kidae Kwon. Seoul: Vegabooks, 2011.
- Simon, John. "LaBrute." 25 Jan. 2005. Retrieved on 15 Dec. 2015. (<http://nymag.com/nymetro/arts/theater/reviews/96/>)
- Smart, Constanza Brahm. "Pop Culture Society in Neil LaBute's *Fat Pig*." *White Rabbit: English Studies in Latin America* 1 (2011): 1-24.

- 논문 투고일자: 2015. 11. 12
- 심사 완료일자: 2015. 12. 16
- 게재 확정일자: 2015. 12. 22

Abstract

Cultural Meanings of Body Type: *Fat Pig*

Yong-Nam Park

(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socio-cultural meanings of personal body-size in American culture represented in Neil LaBute's acclaimed play, *Fat Pig*. According to 'lookism,' fat people are subject to social prejudices, such as "idle," "irresponsible," "incompetent," even "abnormal," which is derogative. Because of this, many people, especially women are oppressed by the 'cult of thinness' in American 'fat-phobic' society. This 'fat-shame' culture based on false 'beauty myth' functions as a modern oppression against individuals.

In *Fat Pig*, Tom is tormented by his peers just because he is dating with an obese woman, Helen. Although Tom doesn't agree with their prejudices against Helen and he dearly loves her, he cannot but to leave her at a beach party eventually. He is not strong enough to fight against the powerful social prejudice, 'lookism.' *Fat Pig* shows 'lookism' in American culture can be very oppressive and even violent against innocent individuals.

Key Words

『팻 피그』(*Fat Pig*), 닐 라부트(Neil LaBute), 체형(body type), 외모지상주의(lookism), 비만공포(fat-phobia), 편견(prejudice)